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부안군은 202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근로능력자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2인 기준중위소득 70%(인 가구는 120%) 초과 또는 재산액 2억원 초과일 경우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대상자는 오는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공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DB관리, 서비스 지원 및 환경관리 지원 등의 사업유형에 배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미래전략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국내 품종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분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바이러스 없는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해 명품 고구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지역 농가 14곳에 조직배양묘를 2만5350주를 유상 분양(한 주에 100원씩)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자가 채종 종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무병묘 고구마를 재배하면 수확량이 20~30% 이상 늘고 병충해가 적고 색, 맛 등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창군 무병묘 공급 품종에는 '호감미' '소담미' 총 2종이다. 호감미는 고구마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 때 색이 예쁘게 나오는 장점이 있으며 소담미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중간 특성이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고구마는 토질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국내 품종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분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바이러스 없는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해 명품 고구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지역 농가 14곳에 조직배양묘를 2만5350주를 유상 분양(한 주에 100원씩)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자가 채종 종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무병묘 고구마를 재배하면 수확량이 20~30% 이상 늘고 병충해가 적고 색, 맛 등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창군 무병묘 공급 품종에는 '호감미' '소담미' 총 2종이다. 호감미는 고구마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 때 색이 예쁘게 나오는 장점이 있으며 소담미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중간 특성이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고구마는 토질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바이러스 없는 조직배양묘 분양을 통해 명품 고구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지역 농가 14곳에 조직배양묘를 2만5350주를 유상 분양(한 주에 100원씩)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자가 채종 종자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무병묘 고구마를 재배하면 수확량이 20~30% 이상 늘고 병충해가 적고 색, 맛 등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창군 무병묘 공급 품종에는 '호감미' '소담미' 총 2종이다. 호감미는 고구마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 때 색이 예쁘게 나오는 장점이 있으며 소담미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중간 특성이며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고구마는 토질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확대

정읍시,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정읍시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 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등록되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내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바우처 대상자

결정 및 승인 후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안정·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자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118명의 저소득층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유진섭 시장은 3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현안 사업 추진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관광객 불편함 없도록”

유진섭 정읍시장, 영상 간부회의 '폭염 피해 예방 총력' 지시

유진섭 시장은 3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현안 사업 추진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시장은 "용산호 일대와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힘을 쓸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공사 현장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무더위쉼터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에 힘을 쓸 것을 당부했으며 폭염·가뭄 관련 대응 요령 홍보와 의료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평년 대비 강수량 부족으로 최근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논 밭 등 영농작업장의 피해 파악을 지시하고, 하천수 이용 등 가뭄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절기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치매관리사업 전북도 평가 유공 우수기관 표창

고창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고창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5일 전북지역 2021년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와 전라북도 치매관리시행계획 주요과제를 평가지표로 도내 14개 기관 대상 실시한 결과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고창군보건소는 국가 재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 기관과 연계한 치매환자, 의식자 등 고위험군을 찾아냈다. '치매파트너' 단비지원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단비지원사업은 치매센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이다.



고창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25일 전북지역 2021년도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8명, 매치코비지원 등 치매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해당 읍·면 보건기관에 연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정치인·유명인 지원유세 이어져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총료 하루 전인 30일 정읍시내 지역과 읍·면을 계속해 돌며 시민들에게 "정읍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인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꾸고 고쳐야 하는지 정확



하게 아는 사람이 이학수"라면서 "정읍시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헤이릴 줄 아는 준비된 시장 이학수에게 시장직을 맡겨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정치인과 유명인들의 지원유세가 계속되고 있다. 최극배우 겸 영화인인 심형래 감독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정읍을 찾아 만나질 동안 머무르며 이학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심형래 감독은 오후 2시 30분 정읍시 외버스터미널과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을 찾아 시민과 대기 중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만나 지원을 부탁하는 것에 이어 유세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한다. 심 감독은 "무소속 후보로는 정부의 지원도 광역단체의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부안지역 해수욕장, 7월 9일 일제 개장

부안지역 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 일제히 개장한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장기간과 안전관리 등 해수욕장 주요 운영·관리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택 부안군수 권한 대행 주재로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소방서, 부안교육지원청,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 변산지역발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의 심의결과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개장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38일간 개장하며 폐장 후에도 이용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안전



관리 상태 유지와 각종 편의시설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와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등을 준수해 방역소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 시 부합하게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